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

이슬비

2017년 10월, 수시모집 서류 평가기간이었다. 나는 팀장에게 호출을 받고 교무과장실로 들어갔다. 팀장은 내게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미 팀장의 지시를 받고 한 차례 점수를 낮췄음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심지어 이번에는 최하점인 700점을 주라고 더 명확하게 요구 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학생을 싫어하고 불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 가에 대해 좌절했다. ★학생은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7교대에서 2012년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했고, 2013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담당자를 맡고 있었다. 처음에는 팀장의 요청대로 경증 장애 학생을 선발했으나, 2~3년 뒤부터 경증과 중증을 가리지 않고 장애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했다. 장애의 정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장은 장애 학생을 싫어했기에 나오는 늘 의견이 맞지 않았다. 특히, 장애 학생 선발에 있어 그는 몇 년 동안 중증 장애학생이 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일부 교수들은 팀장의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 어느 누구도 팀장의 발언이나 행동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바꾸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담당자인 내가 평가자들에게 '중증 학생을 선발하지 말아주십시오. 평가에서 최하점을 주십시오.'라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평가자의 고유권한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해당 발언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하기 곤란하다.'며 그의 지시를 완곡히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A직원을 시켜 교수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곤 했는데, 그것마저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나는 몇 년 동안 팀장의 의견에 반하여 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장애학생을 선발하였고, 2016년에 청각장애 2급, 지체장애 2급의 중증 장애학생을 선발하였다. 팀장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며칠 동안 불러 왜 이런 학생을

선발했냐고 욕박을 지르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의 그릇된 생각으로 나를 세뇌시키려 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중증 장애학생의 입학이 늘어나자 팀장은 2017년 입시를 앞두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유독 신경을 썼다. 그렇게 그는 시각장애 1급 학생을 발견했고, 수차례 내게 ★학생을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나 역시도 ★학생에 대한 서류를 보고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평가는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증 장애 학생이라고 해도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력한 수험생 일 뿐이었으며, 그 어디에서도 장애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에 맞춰 평가를 진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류 평가자들에게 팀장의 의견을 전하지 않았고, 팀장은 이번에도 A직원을 시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나를 포함해 총 3명의 평가자가 ★학생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 팀장과 의견이 달랐던 나와 B교수는 평가 점수가 비슷했지만, 팀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C교수는 매우 낮은 점수로 해당 학생을 평가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참담했지만, 이 또한 평가자의 고유권한이니 내가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팀장의 생각은 달랐다. 서류평가가 마무리 될 즈음 나는 팀장에게 다시 불려갔다. 이미 한 차례 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해서 내가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 나는 그와 타협했다고 생각했지만, 팀장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팀장은 다시 나를 불러 ★학생에게 최하점을 주라고 계속해서 지시 했다. 교무과장실을 나와 내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평가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까, 나는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더 이상 점수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낮출 수 있는 만큼은 다 낮췄어요.”

팀장은 앉은 자리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의자를 당겨와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내 평가ID로 로그인을 하게 한 후 해당 학생의 제출서류를 보며 내게 어떤 평가항목을 어떻게 낮춰야 할지 하나씩 짚어주기 시작했다.

“팀장님, 시각장애 1급이라는 것만 빼면, 이렇게 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는데요. 저는 못 합니다. 지금 이 점수(880점)도 엄청 낮게 준거예요. 거의 100점을 깎은 건데요?”

그는 내 말에 수긍을 하면서도 평가자 간 편차를 만들어 재평가 대상으로 만든 다음 자신이 해당 학생을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도 그 학생의 서류를 보며 대단하다는 말을 계속하곤 했다. 나는 내 손으로 ★학생의 성적을 낮출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팀장은 내 평가ID로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했고, 이후 내게 자신이 평가한 성적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노라 협박했다. 그의 바람대로 ★학생은 재평가 대상이 되었지만, 끝내 1단계를 통과하여 면접평가 대상자가 되었다.

면접 평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다. 팀장이 또 나를 불렀다. ★학생이 선발되면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학생을 신경 쓰느라 미처 몰랐던 다른 중증 학생들까지 들먹이며

“니 2급이 니 아 선생이라고 생각해 봐라, 이거 제대로 되겠나? 학부모 상담도 학급 관리도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지도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 장애를 비하 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또한 내가 그들의 장애에 대한 연민으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정에 이끌려 평가를 하면 안 된다며 나를 폄하하기도 했다. 팀장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자신의 말을 충분히 알아 듣고 있는지 여러 번 확인했다. 이후 그는 총장도 예산, 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중증 장애 학생을 면접 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회유를 가장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 나갔다. 나는 정도, 연민도 아니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할 것이며, 이는 다른 평가자들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몇 번이나 대답한 이후에야 겨우 교무과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다음 날 팀장은 자신이 ★학생의 면접을 봐야겠다고 했다. 원칙대로라면 담당자인 내가 속한 조에 배정되어야 하지만, 내게는 그를 막을 힘이 없었고 팀장은 나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한 것이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은 A직원에게 ★학생의 면접조를 자신에게 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면접 당일 팀장은 나에게 ★학생을 불합격 시킬 것이라며 내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나는 팀장에게 말했다.

“만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학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지.”

몇 시간 뒤, 면접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만난 팀장은 내게 잠시 밖으로 나와 보라고 하더니, ★학생에게 만점을 줬다고 했다. 그제야 팀장은 ‘왜 내가 ★학생을 꼭 선발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은 1단계 성적이 너무 낮아서 면접에서 만점을 받고서도 후보 1번이 되었다. 만약, 1단계 성적을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최초 합격자 명단에 포함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아쉬움이 많았다.

면접이 끝나고 합격자가 결정 되었을 때, 나는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를 방문했다. 추천서를 작성한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확인 한 후 3학년 교무실에 들어갔다. 담임교사가 내가 ㄱ교대에서 온 입학사정관임을 알리자 등을 돌리고 있던 5-6명의 교사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교무실에 있던 모든 교사들이 의자를 당겨 앉아 나를 환영해주었다. 참으로 부끄러웠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시는구나.’ 싶어서 이미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어떻게든 내 존재를 숨기고 얼른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나를 둘러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나를 반가워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학생은 3-4곳의 교대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1단계를 통과한 곳은 ㄱ교대 밖에 없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학생이 떨어질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 학생이라는 것. 그런데 ㄱ교대는 1단계를 통과하여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평가를 제대로 하는 곳은 ㄱ교대 한 곳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너무도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아마 다른 교대에서 1단계를 불합격한 것은 중증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1단계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이라니. 내부적으로 이 학생을 1단계 탈락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를 아는 나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로 ★학생의 1단계 합격에 대한 묘한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수험생 모두는 그 동안의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와 기회가 있는데, ★학생은 중증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었구나. 그나마 우리 대학에서 면접을 본 것이 정말 공정한 평가이긴 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과 의문을 뒤로 한 채 현장방문을 마무리 했다. 이후 추가합격자가 발표 되었고 등록기간에 ★학생은 우리 대학이 아닌, 집 근처 대학에 진학했다. 팀장과 A직원은 중증 장애 학생이 등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큰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들은 집 근처 대학에 가는 게 그 학생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자축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씁쓸함과 죄책감에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내 스스로를 책망하곤 했다.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여 많은 장애 학생을 만났지만, ★학생의 입시 과정은 내게 큰 부채감으로 남았다.

몇 년 뒤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으며 2019년 5월 나는 휴직 했다. 휴직 당시 나는 학교 측에 입시 비리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익제보를 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묵살하였다. 학교 측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나는 ★학생의 입시부정을 지시한 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상집행방해’로 고소하였고, 나의 부끄러움이자 죄책감이었던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다.

2021년 4월 1일 “국립교대, 중증장애 이유로 입시 성적조작”이라는 기사가 경향신문을 통해 그동안 내가 겪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숨겨둔 진실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중앙일보, MBC등에 관련 내용이 추가로 보도되었다.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관련자들이 항의를 시작했다. 팀장, A직원, 학교 측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입시 조작이 없었다고 발뺌하기 급급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또 다른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2021년 10월 1일. 나는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학생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에서도 입시비리가 있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여파는 대단했다. 교육부는 두 번에 걸친 감사를 진행했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단 및 향후 3년간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여전히 그들은 입시비리는 없었고,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진실로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라보지 못한 채 남을 탓하고 변명하는 모습은 실로 통탄스러웠으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내온 그동안의 시간이 초라하다 못해 비통스러웠다.

2022년 12월 나는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이후 실시한 두 번째 감사에서 다른 전형에서도 성적 조작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A직원은 교수들이 입학팀에서 부여한 평가 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교수들의 평가ID, PW를 이용하여 약 1,300여건에 달하는 성적 조작을 했다고 했다. 또한 팀장과 A직원은 부적절한 별도심사기준과 일명 불합격 평가조를 편성 한 것이 드러났다. 특정학교, 특정지역 지원자,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오로지 봉사활동 시간 미달 등의 이유로 일부 학생들을 불합격 평가조에 배정하여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1단계 서류평가를 불합격 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특정 평가조의 평가자 3명 중에 2명이 바로 팀장과 A직원이었다.

참담한 현실이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다. 수사관은 내게 입시 전반에 걸친 부정에 대한 공익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공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공범”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과연 나는 그들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공범이었는지, 용기를 낸 부끄러운 공익제보자인지 스스로 구별할 수가 없었고 나는 다시 한 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다만, 그들과 내가 다른 건 모두가 ‘이 일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안에 남아 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그들은 서로의 잘못이라며 서로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특히 A직원은 장애학생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던 팀장을 위해 장애 학생 평가 조작은 입시 비리가 아니라고 증언 했는데, 다른 전형 입시비리에서는 모두 팀장이 시켜서 한 일이니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맞서 싸울 때, 그는 단 한 번도 팀장의 의견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내가 그 일들로 힘들다고 토로할 때, 오히려 나에게 팀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왜 말을 안 듣는 건지 모르겠다고, 내게 ‘정신병자 아니냐.’며 나를 조롱하곤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 편이던 두 사람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는 모습이 딱 우습고도 씁쓸했다.

이후 언론으로 접한 그들의 소식은 몇 번의 재판 끝에 각각 1~2년의 징역, 3~5년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의 판결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소속 대학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처리 되었다.

제일 처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중증 장애가 있으니 그런 평가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곤 했다. 장애가 있으니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음에도 사람들은 장애는 차별받아 마땅한 것으로 이야기 했다. 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생각했다. 과연 그들이 장애 학생만을 차별 했을까?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다른 사실에는 관심이 없을까 하는 것 이었다. 그들은 장애 학생 외에도 다른 지원자의 출신 지역, 소속 학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워 불합격 시킬 만큼 불공정한 평가를 일삼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ㄱ교대의 입시비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차별 등이 드러난 사건이다. 하지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고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그들의 그릇된 생각은 장애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ㄱ교대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를 향했고, 이는 또 다른 편견과 차별로 이어져 공정한 평가의 기회 제공을 박탈한 것이었다.

나는 ㄱ교대의 참혹하고 불편한 진실을 밝힘으로서 입학업무 본연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익제보 이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운영 대한 조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학사정관들의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입시비리와 같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장애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과 부채감을 조금은 덜 수 있었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옛날에도 있나니. 밝은 길은 어두운 것 같고, 앞으로 가는 길은 뒤로 뒤쳐진 것 같다. 평탄한 길은 기복이 있는 것 같고 최상의 덕은 텅 빈 골짜기처럼 보인다. 크게 흰 것은 더러운 것처럼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다. 건전한 덕은 구차한 것 같고, 수수한 덕은 번덕스러워 보인다. 큰 그릇은 이루어지는 것이 늦으며,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허나 어찌하랴, 그 모든 것이 도라 한들 도를 아는 자가 그 길로 어찌 아니 발을 땔 수 있으랴...’

입학사정관이 된 지 12년만인 이제야 나는 부끄럽지 않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평탄하고 밝아 보이는 이 길도, 멀리서 보면 구부러지거나 더러운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보이는 사실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正道인지를 늘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